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6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6. 지난 이레 동안에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허락해주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은 줄이게 해주시고, 태만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살이에 지쳐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단순하고 평범한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강할 때 감사하며, 약할 때 기도하고, 행복할 때 찬양하고, 시련을 당할 때 더 깊은 은혜의 샘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며 살기보다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용기를 허락해주십시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겨운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일치를 맞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골3:9-10	인도자
♠ 교 독 문	8. 시편 19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한성건 선생 II. 조병무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213. 먹보다도 더 검은	다함께
성경봉독	I. 마6:24-34	다함께
	II. 갈6:14-18	정경례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진정한 웰빙	김재흥 목사
	II. 그리스도인의 인식표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93.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함께
헌금봉헌	<연주: 이일주>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
십시오. 매마른 땅을 종일 걷는 것 같은 인생길이라 해도,
주님이 앞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사랑과 섬김과 나
눔으로 세상에 복을 가져가는 이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당신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는 바로
우리들의 죄악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세상을 향해 뻗으시는 주님의 퍼신 두 팔이 되고 싶습니
다. 허세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에 희망을 만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3회 신앙강좌	신명기 강해(8)
유미호 실장(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도 : 권미정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한지혜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박석희 집사

7월	영접위원	김철수	이용한	이호원	최종원	박홍재	안경숙
	헌금위원	윤석철	김준호	한상익	구성실	임정자	오성희

첫 사랑에 대한 믿음

오늘밤 공동체 내부의 영어권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화요일 미사를 집전했다. 무척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조용하면서도 기쁨에 찬 축제정신이 감돌았다.

트로슬리로 돌아오는 ‘귀가’는 결코 쉽지 않았다. 오랜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나를 사람들이 진심으로 환영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속에서 공동체의 종신가족들은 대체로 모든 사람의 요구에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여기에서 내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이 하나님 백성의 한정된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 일그러지고 죄 많은 백성이 날이면 날마다 고백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스스로는 실현 불가능한 어떤 사랑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줄 수 없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갈증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칫 회한과 분노로 변질 수 있는 실망과 환멸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맞게 될 것이다. 고백과 용서가 생활방식으로 굳어진 공동체가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 당신의 거룩한 사랑을 널리 알리도록 부르시는 예수 곁에 붙들어둘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오늘의 성찬전례는 나 자신의 갈등들을 토로하는 한편, 다른 이들에게도 스스로의 갈등을 감지하도록 도와주는 기회가 되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리에 모인 작은 회중이 대표하는 나라가 최소한 여섯 나라나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피상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중심으로 모임으로써, 한량없고 무조건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첫사랑’을 서로에게 표출할 수 있는 응집력 강한 공동체가 되고 있었다. 이같은 신비가 그저 놀랍기만 했고, 그러면서 이 사랑의 치유효과가 내 마음속에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벽 없는 감옥

정말로 뜨거운 하루였다. 수많은 사람이 고해성사를 받거나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털어놓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이 토로하는 고독감, 소외감,

죄책감, 수치감에 대해 들으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립감이 끔찍스럽기만 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지극히 유사하고 우리의 갈등 또한 공통된 인간성의 일부분으로 녹아들어 있으면서도, 우리는 마치 사람을 마비시키는 고통을 혼자서만 체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가 많다. 하루를 보내면서 한순간 오늘 나에게 이야기한 사람들 전원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그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하여 서로에게 위로와 평안의 샘이 되어주도록 당부하고 싶었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절실한 느낌을 서로에게 감추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몹시 고달프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굉장한 은총의 선물들을 부여받은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감춤으로써 치유능력도 아울러 덮어두고 있다는 것은 실로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다. 이곳처럼 정겹고 자상한 공동체에서조차 고독은 필요 이상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발견하도록 부르심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받은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다. 바로 이 두려움이 우리를 그야말로 벽도 없는 감방에 갇힌 수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예수의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진보적인 것인가를 하루가 다르게 깊이 실감하고 있다.

영적 여정의 기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큰 소리로 또렷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아주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던 나날이 있었다. 그렇지만 내 내면의 영적 생활마저 내동댕이치고 하나님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은 채 멋진 인생을 즐기는 자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나날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두 가지 마음상태를 구분하고 언제 어떻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도다. 내가 날마다 마음속 깊이 오랜 시간 기도드리고 있는 한 올바른 곳에 자리잡고 충실한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피로와 분심 또는 나태로 인해서 기도를 그냥 넘길 때 나는 이내 담장 너머로 가서리라는 점을 알게 된다. 두 번째 기준은 깊고 진솔한 우정이다. 이제는 나를 예수 곁에 붙잡아매고 나에게 충실하라고 끊임없이 촉구하는 벗과 정기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헨리 뉴엔, 『새벽으로 가는 길』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우듬지

산까치가 겨드랑이에 둥지를 틀어도 모른 척
구름을 손짓하며 백 년이 지나도록
한자리에 서 있는 나무
5층 빌라보다 키가 큰 느티나무
분수처럼 수액이 뿜어 올라간
나무의 머리
우듬지는 그러나 하나가 아니다
옆에서 아래서 사이에서
나뭇잎과 꽃과 열매들 수없이
돌아나고
피어나고
익어가면서
무리 지어 다투며 자라 올라와 마침내
나무의 머리가 되는 순간에도
우듬지는 하나가 아니다
혼자서 우뚝 솟아오르지 않는다
여럿이 함께 바람에 흔들릴 뿐
(김광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정오 장민숙 방현복 이부방 윤정덕 구성실 한상익
 정영선 방문성 박혜경 오진훈 노순옥 구명자 백승민 임보람 김순복
 전영웅 이광용 형인순 윤수진 이소순 김윤수 박옥경 이정규 이인섭
 윤미경 박시내 김지윤 김지호 임승동 백혜숙 임고운 남현우 김은진
 김희진 박홍재 김재흥 최희영 유혜경 우승수 염혜영 송동준 김진경
 길민수

월정헌금:

윤주원 최윤선 문금석 김홍기 최윤기 정두리 김중문 지명주 김미순
 송의섭 이호원 김승현 김수민

감사헌금:

박창운 허정윤 노정숙 이인섭 유증희 이재문 김순복 안종일 정현주
 박준희 이기분 최숙화 김정길 박홍재 김태경 무명2

생일감사헌금: 강인식 김근종 정옥영 김용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조순덕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윤정덕	정경례	노순옥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이소순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문영혜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문금석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문복순	
시온	박효선	허정윤	송의섭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한선희	이순정	
빌립보	최종원	이형숙	박현우	
가버나움	구성실	안홍숙	김정섭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방극숙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최영혜	
두란노	안종일	정현주	교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냉난방비헌금** : 오늘 예배 중에 냉난방비헌금을 봉헌합니다.
2. **신앙강좌** : 오늘 오후 집회는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유미호 기획실장이 오셔서 '생명 밥상 차리기'에 대해서 강의해줍니다. 제목: 음식을 차리고 먹는것도 거룩한 일
3. **월례회** : 예배 후 1,3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4. **연합속회** : 7월 16일(금)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이고, 속회 방학에 들어갑니다. 예배인도 - 베다니속회 식사준비 - 가나안속회
5. **계삭회**: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있습니다. 13일 (화) 오전 10시 필동교회에서 모입니다.
6. **수양회** : 8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수양회(충주제일교회 수양관)에 참석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요. 이번 수양회 주제는 '섬, 평화의 시작'입니다.
7. **신앙실천** : 몸 성히 살기 위해서는 덜 먹어야 하고, 마음 성히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내게는 덜 소용되지만 남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십시오(홈페이지 '그냥 드립니다' 코너에 올리시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 헌물 - 정원석 성도 (전기 운수기)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